

초등학생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Received: October 13, 2025
Revised: December 4, 2025
Accepted: December 5, 2025신 웅¹, 최은실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¹,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Elementary School Children's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ve Symptoms: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Rejecting ParentingE-MAIL:
ces726@catholic.ac.krWoong Shin¹, Eun 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모의 거부적 양육이 높을 때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을 때는 행동억제 기질 수준에 따른 우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거부적 양육이 낮을 때는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기질 요인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우울에 있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아동기 기질,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거부적 양육태도, 조절된 조절효과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기는 우울 장애의 유병률이 낮은 시기이지만 우울 증상이 조기에 발현될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 주요 우울 장애의 강력한 선행지표로 작용한다 (Goodyer et al., 2000; Pine et al., 1999).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개한 『서울학생 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고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4). 이는 중학생(0.13점), 인문계 고등학생(0.02점)의 우울감 상승 점수보다 높은 점수이다(이우연, 2025).

아동기의 정서문제는 생물학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요인 등 하나의 요인에 기인하기보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최성규 등, 2021). 아동기 우울의 원인 중에서도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기질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 행동, 주의 반응에 대한 개인차로, 관찰 가능한 행동 방식이자 성인기 성격의 토대로 정의된다(최은실, 2020). 아동의 기질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Lemery et al., 2002; Oldehinkel et al., 2007; Prior et al., 2000; Rubin et al., 2003). 최은실(2022)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질 요인으로 부정정서 기질,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을 제시하였다. 이 중 행동억제 기질은 수줍음, 위축, 사회적 억제, 회피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며, 우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질적 특성이다(신정아, 김향숙, 2013; 하정진, 박수현, 2020; Chronis-Tuscano et al., 2009; Oldehinkel et al., 2006).

행동억제 기질과 함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기질적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은 의도적 통제 기질이다.

의도적 통제 기질은 주의 집중, 활성 통제, 억제 통제와 관련된 능력이며 행동 및 정서 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기질 요인이다(Rothbart, 1989). 높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취약한 환경에서도 아동의 정서 문제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김현지, 송현주, 2017; 양아름, 최은실, 2024; Rothbart, 2007),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의 개인은 우울 및 내재화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Rothbart, 2007; Wang et al., 2015).

의도적 통제 기질은 아동의 기질 요인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10; Lengua, 2003; Yap et al., 2011). Zhu 등(2022)의 연구에서는 수줍음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억제 행동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특히 수줍음 기질이 높고,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은 아동은 사회 정서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에게서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행동억제 기질은 우울, 불안, 신체화와 같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데, 의도적 통제 기질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2010; Lengua, 2003; Oldehinkel et al., 2006; Yap et al., 2011).

한편, 기질 연구에서 개인 중심 접근은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적 접근이다. 변인 중심 접근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적 효과에 주목하여 기질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Laursen & Hoff, 2006), 개인 중심 접근은 하위집단을 기반으로 여러 기질 요인의 효과를 반영

할 수 있는데(Bergman & Magnusson, 1997), 이러한 접근은 기질 요인의 상호작용이 발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Bergman & Lundh, 2015). 따라서 기질 연구에서 기질 간 상호작용의 경로를 규명하는 것은 발달 경로의 결과, 즉 아동기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othbart와 Sheese(2007)는 정서조절의 과정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이 정서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며 다른 기질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Rothbart (2011)는 활동성, 정서성, 의도적 통제와 같은 기질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차를 형성하고, 기질 간 조합으로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질 간 상호작용의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 아동 발달 및 정서 행동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Zhu 등(2022)은 중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줍음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이 사회-정서적 적응의 어려움(내재화 문제, 또래문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White 등(2011)은 24개월 시점의 행동억제 기질이 이후 유아기 불안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의 하위 요인으로 간주되는 주의 전환과 억제 통제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의 전환 능력이 높은 아동은 행동 억제 기질이 높더라도 불안 수준이 완화되었으나, 억제 통제가 높은 아동은 행동 억제 기질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의 전환은 보호 요인으로, 억제 통제는 위험을 높이는 조절 변인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Eggum-Wilkens 등(2016)은 의도적 통제 기질의

구성 요소와 수줍음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여, 억제 통제가 높을수록 수줍음이 더 빠르게 감소한 반면 주의 전환이 높은 아동은 수줍음의 감소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Eggum 등 (2012)은 종단 연구를 통해 수줍음과 정서성이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상호작용과 불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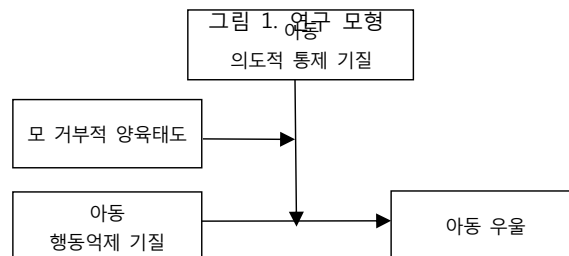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된 핵심 기질 요인들의 상호작용, 특히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의 위험을 높이거나 완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기 발달은 기질적 특성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이라는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충족과 좌절이 발달적 적응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양아름, 최은실(2024)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6요인 양육태도를 제안하였고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증진하는 자율성 지지, 구조, 온정과, 좌절시키는 통제, 비밀관성, 거부의 6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거부적 양육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비반응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거부적 반응을 포함하는 태도이다. 부모의 거부적이고 냉담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Bayer et al., 2006; Hale et al., 2005; Hoeve et al., 2009; Sentse et al., 2010; van der Sluis et al., 2015).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거부적 태도는 자녀의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

키며, 이는 정서적 고통과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또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은 자녀의 자존감을 저하시켜 정서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래 관계의 취약을 매개로 우울 증상을 높일 수 있다(Sentse et al., 2010). 나아가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는 부모의 따뜻함 결여와 적대적인 태도가 청소년 우울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검증하였고(Aaron et al., 2024; Pinquart, 2016), Bayer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처벌과 낮은 정서적 반응성은 아동의 내재화 증상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 발생 경로에 있어 핵심적인 환경적 위험 요인임을 보여 주며,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상호작용 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Lengua 등(2000)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 내재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기질적 취약성과 부정적 양육의 조합은 해당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Aaron 등(2024)은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10편의 종단 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잉보호 및 과잉개입과 같은 아동의 회피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양육태도가 행동억제 기질을 지닌 아동의 사회불안 증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불안장애 진단 수준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질 요인들의 상호작용, 특히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고, 이 관계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질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이거나 완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 경우,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높아질 수 있고,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효과로 인해 내재화 문제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조절 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우울,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동의 행동 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간 조절된 조절효과(삼원 상호작용)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2명이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84.1%, 경기도 13.2%, 기타 지역(인천, 부산, 제주도, 충청남도) 2.6%로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40-49세가 전체의 77.2%로 가장 많았으며, 만30-39세가 13.2%, 만50-59세가 8.6%, 만 60세 이상은 3%로,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자녀의 특성은 남학생 166명(55%), 여학생 136명(45%)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기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최은실 등(2025)이 개발한 'STS 6요인 기질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활동성, 행동억제, 부정 정서, 긍정 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통제의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기질 12 문항, 의도적 통제 기질 14문항을 사용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9, .90이었다.

거부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은실과 양아름(2025)이 개발한 SPS 6요인 양육태도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결정성이론을 근거로 합리적-경험적 접근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자녀의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6가지 양육태도로써 자율성 지지, 통제, 구조, 비밀관성, 온정, 거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6

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거부와 관련된 9문항을 사용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양육태도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하고, 오경자 등(2010)이 번안하고 국내 표준화한 K-CBCL 6-18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만 6세에서 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부모가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을 살펴보기 위해 '위축·우울'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8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이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8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소속 8개 본당의 초등부 어머니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구글폼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공유하여 2024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이들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 실시 전 연구 목적과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응답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0과 Process Macro v.4.3을 활용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3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95% 신뢰수준에서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Hayes, 2013). 또한,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통해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Kline, 2015).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적 양육($r = .15, p < .01$), 우울($r = .37,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은 거부적 양육($r = -.40, p < .001$), 우울($r = -.27,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은 우울($r = .3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효과가 어머니의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302)

	1	2	3	4
1. 행동억제 기질	—			
2. 의도적 통제 기질	-.08	—		
3. 거부적 양육	.15**	-.40***	—	
4. 우울	.37***	-.27***	.35***	—
평균	3.22	4.07	2.24	.12
표준편차	.90	.79	.63	.19
왜도	.21	-.32	.65	2.50
첨도	-.52	-.31	.62	8.11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아동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 효과 ($N = 302$)

		우울				
		<i>B</i>	<i>SE</i>	<i>t</i>	<i>LLCI</i>	<i>ULCI</i>
	상수	.77	.61	1.26	-.43	1.98
독립변수	행동억제 기질	-.29	.18	-1.59	-.66	.07
조절변수	의도적 통제 기질	-.16	.14	-1.10	-.44	.13
	거부적 양육태도	-.49	.26	-1.90	-.99	.02
상호작용항	행동억제 기질x의도적 통제 기질	.06	.04	1.35	-.03	.14
	행동억제 기질x거부적 양육태도	.21	.08	2.70**	.06	.37
	의도적 통제 기질x거부적 양육태도	.10	.06	1.54	-.03	.22
	행동억제 기질x의도적 통제 기질x거부적 양육태도	-.04	.02	-2.06*	-.08	-.00

* $p < .05$. ** $p < .01$. *** $p < .001$.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부트스트래핑은 신뢰도 95%로 설정하고 10,000개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인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4$, $p < .05$). 이는 제2 조절변수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제1 조절변수인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조절된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조절된 조절효과의 유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s)을 통해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제2 조절변수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인 조건부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원점수 2.028점보다 높을 때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그보다 낮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평균(M)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높은 수준과 1 표준편차 낮은 수준으로 나누어 구분한 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를 살펴보았다(그림 3). 그래프에 따르면,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행동억제 기질이 높을 때 우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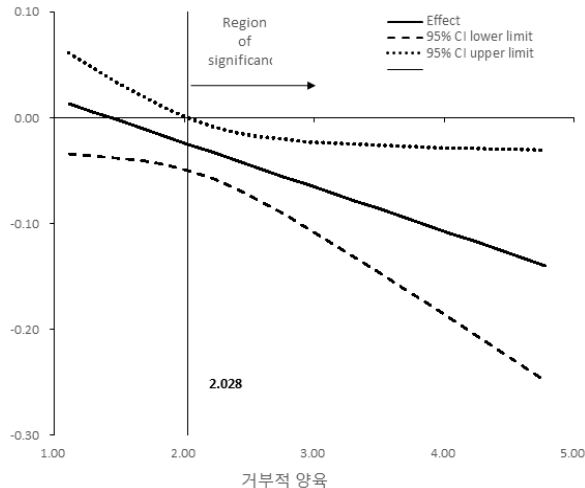


그림 2. 존슨-나이만 방법의 신뢰구간

주. y축은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이원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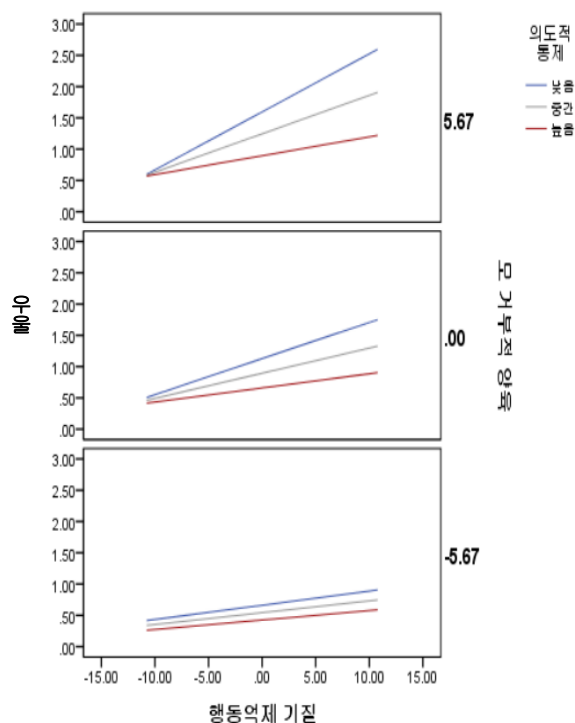


그림 3. 삼원 상호작용 그래프

높은 경우 우울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경우에는 행동억제 기질의 높고 낮음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우울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을 때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고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을 높이지만 의도적 통제는 그 효과를 완화시키고,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행동억제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모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으면, 아동의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과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 간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의 두 요인이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여 삼원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우울, 어

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위축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 쉽다(Kagan et al., 1988). 행동억제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기반의 특성으로, 영아기부터 관찰되며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Kagan & Snidman, 1991). 이는 높은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신정아, 김향숙, 2013; 하정진, 박수현 2020; Chronis-Tuscano et al., 2009; Hundt et al., 2007; Kasch et al., 2002; Oldehinkel et al., 2006).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 기질은 자기조절 및 실행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질적 요인으로, 정서적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에 적절한 대안적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정서적 자극을 단순히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거리를 두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촉발되더라도 적절히 대처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의 전이를 예방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Laible et al., 2016; Lengua et al., 2008; Oldehinkel et al., 2007; Zhu et al., 2022)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의도적 통제 기질은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기술, 적응적 정서조절,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이 있다(Diener & Kim, 2004; Kieras et al., 2005; Spinrad et al., 2006; Zhou et al., 2004). 예를 들어, Kieras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원치 않는 선물을 받는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즉각적인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면서 주의를 전환하였고, 긍정적 정서 표현 및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나 갈등을 줄여 사회적 부정적 반응을 예방하고, 나아가 반복되는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불안이나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예방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은 아동은 사회정서 발달이 저조하며 상황에 적절한 대안적 반응을 선택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내재화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1; Oldehinkel et al., 2004; Olson et al., 2005)는 선행 연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높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취약한 환경에서도 아동의 정서 문제 행동의 발생 과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김현지, 송현주, 2017; 양아름, 최은실, 2024; Rothbart, 2007),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의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우울 및 내재화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

(Rothbart, 2007; Wang et al., 2015).

또한 Zhu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은 아동의 경우 수줍음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와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부적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에게서는 수줍음과 내재화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억제 기질의 특징인 수줍음이 아동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서 기질적 취약성으로 작용하지만 의도적 통제 기질이 이러한 부정적 경로를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질의 단일적 특성만을 고려하기보다 기질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 즉,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아동의 높은 행동억제 기질과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아동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높을 때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는 거부적 양육 태도 수준이 높은 경우,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이 특히 우울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 때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주는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효과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높은 조건에서만 유의하게 존재하여 아동의 우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 특히 거부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동반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어머

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조절 효과의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존슨-나이만 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어떤 수준일 때,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이원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의 수준이 높을 때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과 양육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 여러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Choe et al., 2013; Kiff et al., 2011; Lengua et al., 2000). 구체적으로 Lengua 등(2000)의 연구에서는 낮은 온정, 높은 비밀관성, 높은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 양육은 모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하여금 외현화 문제를 높인다고 하였다. Kiff 등(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짜증, 비난, 적대감, 냉담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사용할 때,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에게서 우울과 불안 증상이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억제 기질에 대한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높은 모든 경우에서 행동억제 기질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높은 모든 경우에서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져도 우울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높은 행동억제 기질과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을 정서 문제의 취약요인으로 주목하고 의도적 통제 기질의 중재 효과를 밝혔으나(Lawle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관련해 부정적 양육 조건이 배제되었을 때에는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이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 간의 관계는 사회불안을 매개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Hamilton et al., 2016; Van Zalk & Van Zalk, 2019), 이는 기질적 취약성이 직접적으로 우울을 유발하기보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 경험 및 불안을 통하여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Biederman et al., 1993). 그러나 이러한 경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같은 부정적 관계 경험이 낮은 조건에서는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거부적 양육 및 부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억제 기질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이 높아지지만, 낮은 부정적 양육 환경 및 지지적인 양육 환경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이 약화된다는 (Aaron et al., 2024; Williams et al., 2009)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안정 애착은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 및 내재화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불안정 애착은 불안과 내재화 문제를 높인다고 한다(Brumariu & Kerns, 2010; Colonna et al., 2011). 자기결정성이론 또한 관계성의 기본적 심리 욕구의 충족이 기질적 취약성의 발현을 억제하는 핵심 기제임을 제안한다(Ryan & Deci, 2000).

종합하면,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상호작용할 때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우울을 설명할 때에는 아동의 기질 요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는 부정적 양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우울 및 내재화 문제의 발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낮은 부정적 양육 수준과 안정적인 관계 경험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이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발현되는 경로를 완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행동억제 기질 및 의도적 통제 기질과 같은 생물학적인 기질적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애착 및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및 관계 경험은 우울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질 간 상호작용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질 간 조합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한 Rothbart와 Sheese(2007)의 입장과 같다. 기존의 연구는 특정 단일 기질 요인과 아동의 부적응 및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단일 요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기질 연구에서는 기질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 기질 요인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긍정 정서 기질은 부정 정서 기질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Rothbart(2007)는 긍정 정서 기질을 개인이 긍정적 정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규정하면서, 활동 수준, 즐거움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긍정 정서 기질은 단순히 기분의 밝음이나 쾌활함을 넘어, 정서적 반응성과 행동적

경향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낮은 긍정 정서 기질이 우울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최은실, 양아름, 2023; Clark & Watson, 1991; Lonigan et al., 2003; Olinio et al., 2010). 예를 들어, Lonigan 등 (2003)의 종단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기질이 낮은 아동이 불안 및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이는 긍정 정서 기질이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기질을 포함한 다양한 기질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기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기질 간 상호작용을 거부적 양육이라는 양육 요인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질과 양육의 동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과 관련해 취약성을 보이는 기질적 조합을 제시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에 더 민감한 아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임상 장면에서 기질 평가와 부모 양육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차원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를 가진다(양아름, 최은실, 2024; Deci & Ryan, 2000; Ryan Deci, 2000). 기존의 양육태도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첫째, Baumrind의 유형론적 접근은 부모를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

적 유형으로 단순 분류함으로써 발달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Schaefer의 차원론적 접근은 ‘수용 대 거부’, ‘자율성 대 심리적 통제’와 같은 축을 통해 양육을 설명했으나, 차원을 양극으로 가정하여 부모가 동시에 높은 수용성과 높은 거부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Schaefer, 1965)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한 6요인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부적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6요인 척도의 다른 차원들 역시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낮은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기본 심리 욕구를 좌절시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Soenens & Vansteenkiste, 2005), 부모의 낮은 온정은 애착 관계를 약화시켜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우울을 촉진할 수 있다(McLeod et al., 2007). 또한 비밀관적 양육은 아동의 무력감에 영향을 주어 내재화 문제를 심화시키며(Lengua et al., 2000),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 또한 우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Barber, 199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거부적 양육뿐 아니라 자율성 지지, 통제, 온정, 구조, 비밀관성 등 다양한 양육 요인이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의 발달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현지, 송현주 (2017). 우울한 어머니와 아동의 문제행동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조절 효과. **재활심리연구**, 24(1), 77-96.
<https://doi.org/10.17329/jrp.2017.24.1.77>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4). 『서울학
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신정아, 김향숙 (2013). 행동억제성향, 감정명명곤란, 반추와 걱정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3(2), 269-283.
- 양아름, 최은실 (2023). 긍정 정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 긴급성과 마음챙김의 조절된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12(1), 1-19.
<https://doi.org/10.22839/adp.2023.12.1.1>
- 양아름, 최은실 (2024). 유아의 부정 정서 기질과 공격 행동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마음챙김 양육의 조절된 조절효과. **한국 아동심리치료학회지**, 19(2), 1-22.
<https://doi.org/10.23931/kacp.2024.19.2.1>
- 양아름, 최은실. (2024).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6요인 양육태도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37(3), 1-29.
<https://doi.org/10.35574/KJDP.2024.9.37.3.1>
- 오경자, 김영아,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10). **한국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6-18**. 서울: 휴노.
- 이우연 (2025. 05. 19). 초등생 우울·불안 더 커졌다...“80년대생 학부모 양육 태도 영향”.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8236.html>에서 2025년 8월 15일 인출.
- 최성규, 박찬영, 박비주, 김정규, 신지현, 송혜경, 장효민, 강민주, 정은영, 이드보라, 이국정 (2021). **장애아동의 이해**. 서울: 하우.
- 최은실 (2020). 기질에 대한 고찰. **발달지원연구**, 9(3), 85-108.
<http://dx.doi.org/10.22839/adp.2020.9.3.85>
- 최은실 (2022). 유아 기질 유형에 따른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열린부모교육연구**, 14(4), 203-232.
<http://dx.doi.org/10.36431/JPE.14.4.11>
- 최은실, 양아름(2025). **SPS 6요인 양육태도검사**. 서울: 가이던스.
- 최은실, 윤진영, 양아름(2025). **STS 6요인 기질검사(아동용)**. 서울: 학지사.
- 하정진, 박수현 (2020). 행동 억제 기질과 가족 내 표출 정서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6(4), 283-307.
- Aaron, E. M., Caley, E., & Kiel, E. J. (2024). Parent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child inhibited temperament and anxiety in Western context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7(4), 807-831.
<https://doi.org/10.1007/s10567-024-00492-5>
- Angst, J., Sellar, R., & Merikangas, K. R. (2000). Depressive spectrum diagnoses. *Comprehensive Psychiatry*, 41(2, Supplement 1), 39-47.
[https://doi.org/10.1016/S0010-440X\(00\)80007-3](https://doi.org/10.1016/S0010-440X(00)80007-3)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https://doi.org/10.2307/1131780>
- Bayer, J. K., Hiscock, H., Ukoumunne, O. C., Price, A., & Wake, M. (2006). Parent influences on early childhood internalizing difficulti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6), 542-559. <https://doi.org/10.1016/j.appdev.2006.08.002>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https://doi.org/10.1017/S095457949700206X>
- Bergman, L. R., & Lundh, L. G. (2015). Introduction: The person-oriented approach: Roots and roads to the future. *Journal for Person-Oriented Research, 1*(1-2), 1-6. <https://doi.org/10.17505/jpor.2015.01>
- Biederman, J., Rosenbaum, J. F., Bolduc-Murphy, E. A., Faraone, S. V., Chaloff, J., Hirshfeld, D. R., & Kagan, J. (1993). A 3-year follow-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behavioral inhib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4), 814-821. <https://doi.org/10.1097/00004583-199307000-00016>
- Brumariu, L. E., & Kerns, K. A. (2010). Parent-child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review of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1), 177-203. <https://doi.org/10.1017/S0954579409990344>
- Carey, W. B. (1986). Clinical interactions of temperament: Transitions from infancy to childhood. In R. Plomin & J.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Chess, S., & Thomas, A. (1986). *Temperament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Choe, D. E., Olson, S. L., & Sameroff, A. J. (2013). Effects of early maternal distress and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437-453. <https://doi.org/10.1017/S0954579412001132>
- Chronis-Tuscano, A., Degnan, K. A., Pine, D. S., Perez-Edgar, K., Henderson, H. A., Diaz, Y., Raggui, Y. D., & Fox, N. A. (2009).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9), 928-935. <https://doi.org/10.1097/CHI.0b013e3181ae09df>
- Clark, L. A., & Watson, D. (1991). Tripartite model of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metric evidence and tax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316-336. <https://doi.org/10.1037/0021-843X.100.3.316>
- Colonnaesi, C., Draijer, E. M., Stams, G. J. J.

- M., Van der Bruggen, C. O., Bogels, S. M., & Noom, M. J. (2011). The rel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child anxiety: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4), 630-645.
<https://doi.org/10.1080/15374416.2011.58162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Diener, M. L., & Kim, D. Y. (2004). Maternal and child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3-24.
<https://doi.org/10.1016/j.appdev.2003.11.006>
- Eggum, N. D., Eisenberg, N., Reiser, M., Spinrad, T. L., Michalik, N. M., Valiente, C., & Sallquist, J. (2012). Relations over time among children's shyness, emotionality, and internalizing problems. *Social Development, 21*(1), 109-129.
<https://doi.org/10.1111/j.1467-9507.2011.00618.x>
- Eggum-Wilkens, N. D., Reichenberg, R. E., Eisenberg, N., & Spinrad, T. L. (2016). Components of effortful control and their relations to children's shy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0*(6), 544-554.
<https://doi.org/10.1177/0165025415597792>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https://doi.org/10.1111/1467-8624.00337>
- Eisenberg, N., Spinrad, T. L., & Eggum, N. D. (2010). Emotion-related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 to children's maladjus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95-52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08>
- Goodyer, I. M., Herbert, J., Tamplin, A., & Altham, P. M. E. (2000). First-episode major depression in adolescents: Affective, cognitive and endocrine characteristics of risk status and predictors of onse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2), 142-149.
<https://doi.org/10.1192/bjp.176.2.142>
- Hamilton, J. L., Stange, J. P., Abramson, L. Y., & Alloy, L. B. (2016). The temporal sequence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following interpersonal stress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3), 495-509.
<https://doi.org/10.1007/s10802-015-0049-0>

- Hale, W. W., III, Van der Valk, I., Engels, R., & Meeus, W. (2005). Does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make adolescents sad and mad?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with adolescent depress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6), 466-474.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04.04.007>
-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 Gerris, J. R.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6), 749-775.
<https://doi.org/10.1007/s10802-009-9310-8>
- Howard, M. C., & Hoffman, M. E. (2018). Variable-centered, person-centered, and person-specific approaches: Where theory meets the method.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1*(4), 846-876.
- Hundt, N. E., Nelson-Gray, R. O., Kimbrel, N. A., Mitchell, J. T., & Kwapil, T. R. (2007). The interaction of reinforcement sensitivity and life events in the prediction of anhedonic depression and mixed anxiety-depression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 1001-1012.
<https://doi.org/10.1016/j.paid.2007.02.021>
-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O.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6), 1580-1589.
<https://doi.org/10.2307/1130672>
- Kagan, J., & Snidman, N. (1991).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8), 856-862.
<https://doi.org/10.1037/0003-066X.46.8.856>
- Kasch, K. L., Rottenberg, J., Arnow, B. A., & Gotlib, I. H. (2002). Behavioral activation and inhibition systems and the severity and course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4), 589-597.
<https://doi.org/10.1037/0021-843X.111.4.589>
- Kieras, J. E., Tobin, R. M., & Rothbart, M. K.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ffortful control and children's responses to undesirable gifts. *Psychological Science, 16*(5), 391-396.
<https://doi.org/10.1111/j.0956-7976.2005.01546.x>
- Kiff, C. J., Lengua, L. J., & Bush, N. R. (2011). Temperament variation in sensitivity to parenting: Predicting changes i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1199-1212.
<https://doi.org/10.1007/s10802-011-9539-x>
- Kline, R. B. (201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ublications.
- Kurcinka, M. S. (2012).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s It Temperament or Missing

- Sleep? *Newsletter of the Temperament Consortium*, 3(1), 2.
- Laible, D., Carlo, G., Davis, A. N., & Karahuta, E. (2016). Maternal sensitivity and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s of peer group affiliation and 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52(6), 922-932.
<https://doi.org/10.1037/dev0000118>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https://doi.org/10.1353/mpq.2006.0029>
- Lawler, J. M., Esposito, E. A., Doyle, C. M., & Gunnar, M. R. (2019). A preliminary, randomized-controlled trial of mindfulness and game-based executive function trainings to promote self-regulation in internationally-adop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4), 1513-1525.
<https://doi.org/10.1017/S0954579418001190>
- Lemery, K. S., Essex, M. J., & Smider, N. A. (2002). Revealing the rel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symptoms by eliminating measurement confounding: Expert ratings and factor analyses. *Child Development*, 73(3), 867-882.
<https://doi.org/10.1111/1467-8624.00444>
- Lengua, L. J., Wolchik, S. A., Sandler, I. N., & West, S. G. (2000).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adjustment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2), 232-244.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902_9
- Lengua, L. J. (2003). Associations among emotionality, self-regulation, adjustment problems, and positive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595-618.
<https://doi.org/10.1016/j.appdev.2003.08.002>
- Lengua, L. J., Bush, N. R., Long, A. C., Kovacs, E. A., & Trancik, A. M. (2008). Effortful control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contextual risk factors and growth in adjustment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2), 509-528.
<https://doi.org/10.1017/S0954579408000254>
- Lonigan, C. J., Phillips, B. M., & Hooe, E. S. (2003). Rela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to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Evidence from a latent variabl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465-481.
<https://doi.org/10.1037/0022-006X.71.3.465>
- McLeod, B. D., Weisz, J. R., & Wood, J.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hood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8), 986-1003.
<https://doi.org/10.1016/j.cpr.2007.03.001>
- Oldehinkel, A. J., Hartman, C. A., De Winter, A. F., Veenstra, R., & Ormel, J. (2004). Temperament profiles associated with

-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pre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421-440.
<https://doi.org/10.1017/S0954579404044591>
- Oldehinkel, A. J., Veenstra, R., Ormel, J., de Winter, A. F., & Verhulst, F. C. (2006). Temperament, parent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population sample of pre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7), 684-695.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5.01535.x>
- Oldehinkel, A. J., Hartman, C. A., Ferdinand, R. F., Verhulst, F. C., & Ormel, J. (2007). Effortful control as a modifier of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2), 523-539.
<https://doi.org/10.1017/S0954579407070253>
- Olino, T. M., Klein, D. N., Dyson, M. W., Rose, S. A., & Durbin, C. E. (2010). Temperamental emotionality in preschool-aged children and depressive disorders in parents: Associations in a large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3), 468-478.
<https://doi.org/10.1037/a0020112>
- Olson, S. L., Sameroff, A., Kerr, D. C. R., Lopez, N. L., & Wellman, H. M.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1), 25-45.
<https://doi.org/10.1017/S0954579405050029>
- Pine, D. S., Cohen, E., Cohen, P., & Brook, J. (1999).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s of adult depression: Moodiness or mood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1), 133-135.
<https://doi.org/10.1176/ajp.156.1.133>
- Pinquart, M. (2016).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in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Marriage & Family Review*, 53(7), 613-640.
<https://doi.org/10.1080/01494929.2016.1247761>
-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 (2000). Does shy-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lead to anxiety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4), 461-468.
<https://doi.org/10.1097/00004583-200004000-0001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A framework.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59-73). Chichester: Wiley.

- Rothbart, M. K. (2007).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ersona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4), 207-212.
- Rothbart, M. K., & Sheese, B. E. (2007).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331-350). New York: Guilford Press.
- Rothbart, M. K. (2011). *Becoming who we are: Temperament and personality in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3).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2), 483-495.
<https://doi.org/10.1111/1467-8624.00419>
- Sentse, M., Lindenberg, S., Omvlee, A., Ormel, J., & Veenstra, R. (2010). Rejection and acceptance across contexts: Parents and peers as risks and buffers for early adolescent psychopathology. The TRAILS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1), 119-130.
<https://doi.org/10.1007/s10802-009-9351-z>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https://doi.org/10.2307/1126465>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3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89-604.
<https://doi.org/10.1007/s10964-005-8948-y>
- Spinrad, T. L., Eisenberg, N., Cumberland, A., Fabes, R. A., Valiente, C., Shepard, S. A., Reiser, M., Losoya, S. H., Guthrie, I. K., & Thompson, M. (2006). Relation of emotion-related regu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Emotion*, 6(3), 498-510.
<https://doi.org/10.1037/1528-3542.6.3.498>
- Turecki, S., & Tonner, L. (2012). *The difficult child: Expanded and revised edition*. Bantam.
- Van Zalk, N., & Van Zalk, M. (2019). Longitudinal links between adolescent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Testing the mediational effects of cyber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0(2), 186-197.
<https://doi.org/10.1007/s10578-018-0829-1>
- van der Sluis, C.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15).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How important are par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2), 3652-3661.
<https://doi.org/10.1007/s10826-015-0174-y>
- Wang, F. L., Chassin, L., Eisenberg, N., & Spinrad, T. L. (2015). Effortful control predicts adolescent antisocial-aggressive behaviors and depressive symptoms: Co-occurrence and moderation by impulsivity. *Child Development*, 86(6),

- 1812-1829.
<https://doi.org/10.1111/cdev.12406>
- White, L. K., McDermott, J. M., Degnan, K. A., Henderson, H. A., & Fox, N. A. (2011).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The moderating roles of inhibitory control and attention shift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5), 735-747.
<https://doi.org/10.1007/s10802-011-9490-x>
- Williams, L. R., Degnan, K. A., Perez-Edgar, K. E., Henderson, H. A., Rubin, K. H., Pine, D. S., Steinberg, L., & Fox, N. A. (2009). Impac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parenting styl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8), 1063-1075.
<https://doi.org/10.1007/s10802-009-9331-3>
- Zhou, Q., Eisenberg, N., Wang, Y., & Reiser, M. (2004). Chinese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dispositional anger/frustration: Relations to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352-366.
<https://doi.org/10.1037/0012-1649.40.3.35>
- Zhu, J., Xiao, B., Li, Y., Xie, M., & Zhang, L. (2022). Shyn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difficulties in urban Chinese kindergartners: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effortful contr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4(3), 1-17.
<https://doi.org/10.1080/10409289.2022.2051792>

Elementary School Children's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ve Symptoms: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Rejecting Parenting

Woong Shin¹

Eun 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rejecting parenting on the link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on. Data obtained from 302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grades 1-6)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the PROCESS macro.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Under high rejecting parenting, children with low effortful control displayed sharply increased depression as behavioral inhibition increased, whereas those with high effortful control did not differ. Under low rejecting parenting, the interac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effortful control was nonsignifica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ter-temperamental and temperament-parenting interactions in understanding children's depression and further suggest that rejecting parenting critically shapes outcomes for temperamentally vulnerable children.

Keywords : child temperament, behavioral inhibition, effortful control, rejecting parenting